

♣ 우항리 화석지에서는 어떤 지층과 화석을 보게 될까요?

A1> 아니요! 만약 진화론자들이 추정하듯이 8,500만 년 전에서 6,700만 년 전까지 1천만 년 이상 기간 동안 호수와 같은 환경에서 쌓인 것이라면 어떻게 400미터 두께의 지층이 거의 평행하게 쌓일 수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. 또한 지층이 드러나고 난 뒤에 그 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침식과 퇴적이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

또한 무엇보다 여러 층이 동시적으로 쌓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퇴적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.

A2> 네! 중국 북서부의 간쑤성(甘肅省/Gansu Province)에서 발견되었습니다.

A3>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이 큰 변동없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고동류나 나무화석 외에는 체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. 침엽수잎은 흔적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.

♣ 우항리 발자국 화석을 보러갈까요?

1. 조각류 공룡관

A1> 아니요! 발자국처럼 금방 쉽게 사라지는 흔적이 화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발자국이 남겨진 후 사라지기 전에 그 위에 흙과 같은 것이 이동되어 아주 빠르게 덮여야만 합니다.

A2> 명백히 오늘날과 같은 피조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지질현상만으로는 이런 식으로의 화석분포나 양상이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. 실제로 이곳에서 발견된 뼈도 엄청나게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피조물의 단단한 뼈가 아니라 익룡으로 해석되고 있는 속이 빈 여린 뼈가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.

2. 익룡·조류발자국관

A1> 아니요!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.

3. 대형공룡발자국관

A1> 발자국이 나타나는 지층이 오랜 연대설적으로 중생대 지층이고 진화론적 신념에 따라 이미 정해놓은 발자국의 양상을 근거로 공룡발자국으로 해석되고 있을 따름입니다.

4. 야외화석지

A1> 아니요!

A2>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. 건열로 해석되고 있는 퇴적구조가 물이 있었음을 지시하는 물결자국이나 발자국 화석과 같은 층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♣ 해남공룡박물관 - 미션 파서블

I. 지상1층

» 우항리실

A1> 아니요!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과 진화론을 바탕으로 구분해 놓은 시대일 뿐이며,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.

A2> 아니요. 표준화석이란 진화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창조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.

A3> 운석충돌연대와 공룡멸종연대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. 또한 공룡은 멸종했는데, 오히려 온도변화에 더 민감한 다른 파충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.

II. 지하1층

» 공룡과학실

A1> 중생대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에 기초한 오랜 연대설적 신념이므로 반성경적이다. 또한 신생대층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예들도 있습니다.

A2> 과학자들은 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, 트리세라톱스가 코뿔소같이 몸 아래로 곧바로 뻗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, 아니면 도마뱀처럼 구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논쟁하고 있습니다.

A3> 용반목. 어떻게 파충류의 엉덩이뼈에서 조류의 엉덩이뼈로 바뀔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많은 해부학적 차이점을 넘어서서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A4> 아니요! 하나의 커다란 땅덩어리로 다 붙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

#### » 공룡실 (Dinosaur Room)

A1> 성경적 정의로 성경에 나오는 용과 관련이 있는 피조물

A2> 읊기 등

A3> 아니요!

A4> 화석화작용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광물질을 다량 함유한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한데, 사막 환경에서 그러한 조건이 갖춰질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.

#### » 중생대 재현실 - 오랜연대설적 낱말-

A1> 네! 다만,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.

A2> 아니요! 공룡이 살아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작 몇 개의 골격으로 공룡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기란 너무나 어렵겠지요?

A3> 수많은 뼈들이 뒤섞여서 발견되었습니다.

A4> 겨우 20퍼센트(100마리의 공룡 중 20마리) 정도만 골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, 그것도 과연 같은 개체에서 나왔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

A5> 10속 미만입니다.

#### » 해양파충류실

A1> 네!

#### » 익룡실

A1> 아니요!

#### » 새의 출현실

A1> 아니요!

A2> 불가능합니다. 유전정보는 결코 시간이나 창조주없이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저절로 생겨나거나 더 많은 의미있는 정보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.

#### » 거대공룡실

A1> 창세기 대홍수 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손상을 덜 받은 유전정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룡도 오랫동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A2> 아니요! 1946년 영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'지금은 드물다'로 나와 있고 그림도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.

#### » 지구과학실

A1> 뜨거운 용암이 지표로 나와서 빠르게 식는 가운데 다각형을 형성하면서 갈라지게 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
A2>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옴이니라

for she(=wisdom) is more profitable than silver and yields better returns than gold.

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진리인 성경말씀을 기초로 공룡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!^^\* (탐사지 안내: 길소희 간사 010-8628-8944)